



친환경 조경디자이너 하현영

식물에게 건강을 선물 받다

15년을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다가 35세가 되던 해에 취미인 꽃꽂이 실력을 살려 사업에 뛰어들어 하현영 조경디자이너(48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조경디자이너이다. 전라북도 순창시 홍보대사로,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꽃탑, 전라북도 순창의 천년의 정원 등 굵직굵직한 작품 활동으로, 조경 아카데미 강의로 중흥무진 활동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개포동 하현영 조경디자이너의 실내 정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식막한 공간을 식물로 색칠하다

식물과 더불어 사는 삶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평소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식물이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작은 풀 한 포기라도 곁에 있기 마련이다. 생활 속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풀 한 포기지만, 이 풀 한 포기까지 너무 사랑해 삶의 주인공으로 초청한 사람이 바로 하현영 조경디자이너다. 하현영 조경디자이너는 식물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유년시절에는 말린 국화잎 베개에 누워 잠이 들었다. 결혼 후에는 집안에 식물을 하나둘 심어 베란다 정원을 가꿨다. “식물이 너무 좋았어요. 식물이 없으면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꽃이 너무 좋아 꽃집을 차린 것이 조경디자인의 시작이

됐다. 꽃에서 조경디자인으로 전환하고 건축, 디자인, 미술 등 강의를 찾아서 들어가며 조경에 접목시켰다. 노력의 결과로 삼척 세계동굴엑스포 꽃 조형물,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꽃 탐, 순창 천년의 정원 등을 탄생시켰고, 조경에 관한 책 출판, 강연 등 조경디자인에 관한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척척 해낸다.

“식막한 공간을 식물로 디자인하면 공간에 생기가 생깁니다. 식물로 공간도 살고, 그 공간을 찾는 사람도 생기를 찾게 되죠. 이렇게 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 있나요?”

질병을 예방하는 식물, 매일매일 건강할 수밖에

하현영 조경디자이너가 행복한 이유다. 그녀는 식물과 함께하는 생활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생활이라고 말한다. “자연에서 찾은 건강만 한 것이 또 있을까요? 식물이야말로 저의 건강 파트너일 수밖에 없지요. 식물과 함께 생활해서 잔병치레가 거의 없어요. 또, 실내는 항상 건조하기 마련인데 식물이 있는 실내는 건조할 수 없어요. 식물이 습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이죠. 식물이 저를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조경디자이너는 고된 노동이 따르는 작업이다. 디자인적인 감각도 중요하지만, 육체적 노동도 빼놓을 수 없다. 연약한 주부였던 그녀가 고된 작업을 통해 기쁨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식물에 대한 애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하현영 조경디자이너가 식물을 대하는 마음은 특별하다. 식물도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식물을 돌본다. 식물에게 필요한 적절한 햇빛, 바람, 온도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작품을 완성해낸다.

꽃처럼 아름다웠던 젊은 날을 지나 이제는 식물처럼 고혹한 매력을 발산할 시점에 이른 하현영 대표에게 식물은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임과 동시에,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준 것이기에 식물과 함께 하는 시간이 소중하다.

“식물과 함께 생활하는 제 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식물에게 제가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더 큰 배움을 얻고자, 매일 양재천을 따라 걸습니다. 자연을 따라 걸으며 더 큰 자연을 배우는 것이 저의 건강관리 비법입니다.”(웃음) MEDY CHECK